이 자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하반기 경제 전망" (2001. 6)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2001년 하반기 경제전망

- 한 국 은 행 -

1. 해외경제여건

○ 하반기중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나 경기가 매우 부진했던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질 전망

- 미국 경제는 정보통신부문의 투자 부진, 실업 증가 등에 따른 소비위축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으나 그 동안의 금리인하 및 감세정책의 효과*, 재고조정의 진전 등으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연간으로는 1.5% 정도 성장 예상)

*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통상 6~9개월 정도인 점에 비추어 그 동안의 금리인하 효과가 금년 3/4분기 이후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감세정책은 금년 및 내년도의 GDP 성장률을 각각 0.4%p 및 0.7%p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 (6.12, McDonough 뉴욕 연준 총재)

· 잠재능력 수준의 회복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일본 경제는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거시정책운용의 여지가 거의 없어 단기간 내에 침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신흥시장국
2000년 실적[1]	4.8	4.1	5.0	1.5	3.4	5.8
2001년 전망						
IMF(2001.4)	3.2	1.9	1.5	0.6	2.4	5.0
WEFA(2001.4)	3.2	2.1	1.8	1.1	2.8	4.7
OECD(2001.5)[2]	-	2.0	1.7	1.0	2.6	-

주 : 1) IMF 기준 2) 선진국은 OECD 전회원국 기준
3) ( )내는 전망일자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1
WEFA,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2001*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1

- 유로지역 경제는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소득세 경감조치*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효과, 미국 경제 성장률의 완만한 상승 등으로 연간 2% 정도는 성장할 전망

* 독일이 금년중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51%에서 48.5%로 인하한 데 이어 이를 2005년중 42%까지 단계적으로 추가인하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2001~2003년중 각각 GDP대비 1.2% 및 1% 규모의 세금감면을 시행할 계획

○ 세계교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속히 위축되었던 세계경기가 금년 하반기중에는 다소 나아지면서 신장률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

세계교역 신장률 전망

(%)

	1998[1]	1999[1]	2000[1]	2001[e]				
				IMF	WEFA	OECD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교역 신장률	4.2	5.3	12.4	6.7	6.0	5.6	6.5	7.2

주 : 1) IMF 기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1
WEFA, World Economic Outlook, Second Quarter 2001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1

○ 엔화 환율은 일본 경제의 취약성에 따른 약세요인과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 등 약세 제한요인이 혼재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1] 전망

(기말기준, 엔/달러)

전망기관	실적치			전망치	
	2000.12	2001.3	6.18	9월	12월
	114.41	126.18	123.34		
J.P. Morgan(6.6)				130	125
Morgan Stanley(6.8)				120	115
Goldman Sachs(6.7)				124	115
Deutsche Bank(6.8)				130	135
Salomon Smith Barney(6.8)				125	130

주 : 1) 뉴욕시장 종가기준, ( )내는 전망일자

○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수급불안, 이라크의 석유수출 불확실성 등으로 최근의 고유가 수준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기 둔화의 지속, 미국의 휘발유 수급불안 해소 등으로 8~9월경에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다가 동절기 수요가 나타나는 10월경 소폭 상승 예상

— 하반기중 평균유가(Brent유 기준)는 상반기(26.7달러 예상)와 비슷한 배럴당 27달러 정도로 예상

국제유가전망

(기간중평균, 달러/배럴)

	2000					2001[e]				
	1/4	2/4	상반	하반	연간	1/4	2/4	상반	하반	연간
美에너지정보국[1]	26.8	26.6	26.7	28.7	27.7	24.1	25.3	24.7	28.0	26.4
JP Morgan[2]	27.1	27.2	27.2	30.6	28.9	26.5	26.0	26.3	26.1	26.2
	(26.8)	(27.0)	(26.9)	(30.3)	(28.6)	(25.9)	(27.4)	(26.6)		
OEF[2]	26.8	26.5	26.7	30.0	28.3	25.8	25.6	25.7	25.1	25.4
	(26.8)	(27.0)	(26.9)	(30.3)	(28.6)	(25.9)	(27.4)	(26.6)		

주 : 1) 미 정유사 수입가 기준 2) Brent유가 기준
3) ( )내는 Reuters 고시가격기준. 단, 2001. 2/4 및 상반기는 6.18일까지 실적 기준

자료 : 美 에너지정보국(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01.6
JP Morgan, Oil Market, 2001.5.9
Oxford Economic Forecasting, Commodity Price Monitor, 2001.5

○ 기타 원자재가격은 공업용원자재 수요 위축, 주요 작물의 높은 재고와 작황호조 전망 등으로 완만하나마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기타원자재가격 전망

(기간중평균, 전년대비, %)

	1999	2000	2001[e]
OECD	-7.1	3.0	-3.4
IMF	-7.1	1.8	0.5
Reuters 상품지수	-14.0	1.9	-2.2[1]

주 : 1) 1~5월중 실적치 기준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4

2. 하반기 경제전망

가. 경제성장

○ 경제성장률은 3/4분기에는 3%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4/4분기 들어 수출 및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5.1%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금년 하반기 성장률은 4.1%, 연간 성장률은 3.8% 내외로 전망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1]						
	3/4	4/4	하반	연간	1/4[2]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GDP성장률	9.2	4.6	6.8	8.8	3.7	3.3	3.0	5.1	3.5	4.1	3.8
민간소비	5.7	3.2	4.5	7.1	0.9	1.1	2.3	3.0	1.0	2.7	1.8
설비투자	31.9	8.1	19.6	34.3	-7.9	-5.3	1.1	11.8	-6.6	6.1	-0.5
건설투자	-3.5	-2.5	-3.0	-4.1	1.4	2.9	3.5	3.9	2.3	3.7	3.1
상품수출	25.2	18.9	21.9	24.2	8.5	3.4	2.9	7.3	5.8	5.1	5.5
상품수입	21.6	8.5	14.6	21.1	-1.0	-6.8	-2.6	6.7	-3.9	2.1	-0.9

주 : 1) 실적치

(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최근 소비심리의 개선 움직임, 내구재 소비의 확대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완만하게나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CSI가 아직은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그 동안의 소비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1980년대 이후 내구재소비(국민계정 기준)의 순환변동 추이를 보면 내구재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한 후 대체로 2~8분기가 지나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 내구재소비가 5분기 동안(2000년 1/4분기~금년 1/4분기) 계속 둔화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

소비관련 서베이 결과[1]

	2000.10월	11월	12월	2001.1월	2월	3월	4월
통계청 소비자기대지수	89.8	82.4	82.2	89.7	92.0	94.1	96.3
삼성경제연구소 소비자태도지수[2]	41.2	-	-	43.1	-	-	45.3
한국은행 경기전망CSI[2]	59	-	-	66	-	-	-

주 : 1) 기준치는 통계청 및 한국은행은 100, 삼성경제연구소는 50

2) 해당 월이 속하는 분기의 지수

· 실제로 내구재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구소비재 판매(통계청 소비재판매액지수 기준)가 금년 3월 이후 증가로 반전

소비재판매[1] 추이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2001				
	3/4	4/4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내구재	43.9	49.6	46.4	36.1	25.9	2.2	-3.0	-9.5	-2.1	2.1	8.8
비내구재	10.0	8.6	9.7	12.1	8.6	7.9	4.3	12.8	-2.9	2.8	0.2

주 : 1) 통계청 소비재판매액지수 기준

○ 다만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소득의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실질GNI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의 마이너스에서 금년 1/4분기중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반도체 등 수출상품의 가격 하락 등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여전히 크게 하회하는 1.1%에 그쳤음

실질소득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12.6	9.7	9.2	4.6	8.8	3.7
실질GDI	4.6	2.4	3.2	-3.3	1.5	0.6
실질GNI	15.5	3.1	3.6	-2.2	2.3	1.1
교역조건1)	-12.1	-11.9	-9.1	-14.3	-11.8	-5.3

주 : 1) 총수출 디플레이터/총수입 디플레이터(1995=100)

(2) 설비투자

o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의 불투명 등으로 하반기에도 부진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진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조정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이 제조업 전체로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최근 소폭 플러스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남

* 반도체의 생산능력은 여타 제조업종과는 달리 설비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수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향후 움직임을 가늠하는 데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조정압력도 감안할 필요

— 기업경기조사(BSI) 등도 앞으로 설비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

설비투자관련 서베이 결과1)

(전년동기대비, %)

전망대상분기	2000				2001		
	1/4	2/4	3/4	4/4	1/4	2/4	3/4
한국은행 설비투자전망BSI	108	109	104	101	90	93	96
전경련 설비투자전망BSI2)	112	112	102	94	92	104	-

주 : 1) 기준치는 100
2) 월별로 발표된 BSI를 분기로 환산

— 최근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기업 설비투자계획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올해 설비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자원부 기업설비투자계획 조사결과1)

(억원, %)

1999		2000		2001	
금액	증가율2)	금액	증가율2)	금액	증가율2)
217,650	8.8	264,684	21.6	278,318	5.2

주 : 1) 업종별 매출액기준 상위 200대 기업
(제조업과 에너지유통업)을 대상으로
2001.5.1~5.30 동안 조사(2001.6월 발표)
2) 전년대비

o 그러나 설비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보통신산업의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4/4분기중 설비투자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전년 4/4분기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데 기인(2000년 3/4분기 31.9% → 2000년 4/4분기 8.1%)하며 GDP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4/4분기에도 1/4~3/4분기와 비슷한 12% 수준

(3) 건설투자

o 건설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 등으로 다소 호전되어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건물건설투자는 최근 들어 미분양 아파트수가 줄어들고 대형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 실적도 호조를 보이는 등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가세하여 회복 움직임이 상반기보다 뚜렷해질 전망

미분양 아파트 추이

	2000				2001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호수(천호)	59.9	58.2	58.3	58.5	57.2	56.1	53.2	50.7
전월대비증가율(%)	-2.0	-2.9	0.1	0.4	-2.2	-2.0	-5.1	-4.7
지방[1](천호)	40.7	39.4	38.9	38.7	38.0	36.4	33.9	32.4
전월대비증가율(%)	-1.7	-3.3	-1.3	-0.4	-1.8	-4.5	-7.4	-4.7

주 : 1)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요 도시
자료 : 건설교통부

— 반면 토목건설투자는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월드컵 경기장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금년중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

(4) 상품수출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수요 부진으로 낮은 증가율을 지속하다가 미국 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4 4분기 들어서는 증가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과거 경험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당분기 또는 1분기 후에 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곧바로 늘어날 가능성이 큼

— 아울러 미국의 수입수요는 재고조정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IT산업의 재고조정은 아직 부진하나 여타 산업의 재고조정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미국의 상품수입물량은 경제성장률과의 시차상관계수가 당분기 및 1분기후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고변동과의 시차상관계수는 당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남

미국의 경제성장률 및 재고변동과 상품수입물량의 시차상관계수

(대상기간 : 1990.1/4 ~ 2000.4/4)

	당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제성장률[1]	0.6339	0.4755	0.2740	0.0534	-0.0009
재고변동[2]	0.5231	0.2983	0.1396	0.2371	0.0649

주 : 1) 당분기(t) 실질GDP 성장률과 t+i분기 상품수입물량 증가율간 상관계수
2) 당분기(t) 재고증감액과 t+i분기 상품수입물량 증감액간 상관계수

나. 대외거래

○ 하반기중 경상수지는 59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나타낼 전망(연간 흑자규모는 지난해의 110억달러에서 13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수출(통관기준)은 기계류, 자동차 등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통신(IT) 관련제품의 부진 지속으로 3/4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경제의 회복, PC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4/4분기에는 소폭 증가(+1.7%)로 돌아설 전망

* 4/4분기중에는 윈도우 XP 출시, 연말요인 등의 영향으로 PC 수요가 다소 회복되고 생산업체의 공급물량 조절 효과 등으로 반도체 공급과잉 현상도 다소 완화되는 데 기인

— 수입(통관기준)도 3/4분기까지 감소하다가 내외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4/4분기에는 7% 내

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서비스수지는 내국인의 여름철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로 상반기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나 소득수지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

경상수지전망

(억달러)

	2000				2001[2]						
	3/4	4/4	하반	연간	1/4[1]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36.5	33.2	69.7	110.4	30.7	40	34	25	71	59	130
상품수지	54.1	41.6	95.7	166.0	34.6	52	48	35	87	83	170
수출(통관)[1]	443.8	452.1	895.9	1,722.7	401.1	395	424	460	796	884	1,680
	(26.5)	(6.1)	(15.3)	(19.9)	(2.1)	(-9.1)	(-4.5)	(1.7)	(-3.8)	(-1.3)	(-2.5)
수입(통관)[1]	404.0	414.4	818.5	1,604.8	380.4	347	389	443	728	832	1,560
	(35.8)	(16.2)	(25.1)	(34.0)	(-2.0)	(-12.8)	(-3.7)	(6.9)	(-7.5)	(1.7)	(-2.8)
서비스수지	-12.2	-10.2	-22.4	-39.7	-5.5	-6	-12	-10	-11	-21	-33
소득수지	-6.2	1.0	-5.2	-22.0	0.5	-7	-3	-1	-7	-4	-11
정상이전수지	0.8	0.8	1.6	6.2	1.1	1	1	1	2	2	4

주 :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실적치

다. 물가

o 소비자물가는 그 동안 누적된 상승요인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될 전망

* 전년말~4월초의 환율급등, 4월 이후의 국제유가 상승 등의 시차효과와 1999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 7월로 예정된 에너지세제 개편 등

— 기간별로는 3/4분기에는 4%대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4/4분기에 3%대에 진입할 전망

→ 하반기중 상승률은 4.1%, 연평균 상승률은 4.4%로 예상

o 근원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전망이나 둔화속도는 소비자물가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

— 근원인플레이션은 하반기중 4.1%, 연평균으로 4.3% 각각 상승 예상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2]						
	3/4	4/4	하반	연간	1/4[1]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3.2	2.8	3.0	2.3	4.2	5.3	4.4	3.8	4.7	4.1	4.4
근원인플레이션	2.4	2.8	2.7	1.8	4.2	4.6	4.3	3.9	4.4	4.1	4.3

주 : 1) 실적치

o 이처럼 하반기중 물가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물가상승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원화 환율은 4월 중순을 고비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타 원자재가격이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완만하나마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공공요금은 일부 교통요금과 상수도요금 등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추가 인상되지 않을 전망

— 한편 국내경기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